

연 중 제 17 주 일

기도서 P. 399 C해

- 1 목(창 세 18, 20-32절)
- 2 목(골 로 2, 12-14절)
- 복음(루 가 11, 1-13절)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    간    조    심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감 론 □



## 기도는 들어주는 것인가

김 이 환 신부

돌을 도구로 사용한 최초의 인간과 돌로 도끼와 화살촉을 만든 최초의 인간사이에는 아마 50만년의 세월이 경과했을 것이다. 최초의 대장장이와 최초의 기관사 사이에는 5천년이, 그 기관사와 제트 비행기 조종사 사이에는 단지 130년이 걸렸다. 1938년에 발간한 우리나라 책분열의 연쇄반응은 7년후인 1945년에 원자폭탄을 체험하게 했다. 이러한 급진전의 템포는 사람으로 하여금 20년의 앞을 내다보기를 강요하게 됐다.

원시인들은 자기들의 존재와 그 주변 세계의 신비를 신화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 했다. 세계를 3단계-천국·현세·지옥-로 구분했고, 선과 악을 인격화-선신과 악신, 천사와 악마-했으니 이들은 모두 신화적인 근원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것은 신성시했다. 종교적인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온통 신비스럽고 신성하고, 그리고 마술적인 요소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현대에 있어서는 약간의 뜻밖에 없거나 혹은 전혀 무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많은 중요한 측면의 뜻이 의문시 되고 있다.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 교리의 절대성, 성사의 실천, 성체안의 그리스도 실제적인 현존, 하느님 말씀으로서의 성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게 된 것이다. <로버트 아틀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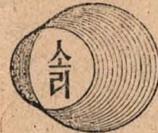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오 하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셨다. 또 귀찮게 구는 친구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누가 어떤 주실 것이고 누드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겸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고사하고 병나음·시험에 합격·부자됨을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기적이다.

우산장수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치 파라솔 장수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 보불전쟁매 불탄서와 독일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 미사를 봉헌했다. 자, 하느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태양처럼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느님은 영원한 역사와 대자연의 주인이시다. 바글바글 들끓는 인간들이 자기 기분대로 바치는 기도에 일일이 응해주실까? 아나, 기적의 산사태를 내리실 것인가?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하느님을 판단하고, 믿고, 꾸미지 말아야겠다. 도리어 각자 말은바에 최선을 다하며 완수해 나가는 행위가 바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평소에는 놀고, 입시때만 미사를 바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자기 하는 일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꾸준히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함열 전주교회 주임신부>



## 어떤 사실

“곤혹을 느끼면서도 그 곤혹의 표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한다면 「月刊 對話」는 몇 달 동안 확실히 그 미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 뒤 표지의 광고란에 뭔가 사진같은 것이라도 넣어서 인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어떤 사실」을 덮어 버린다는 것도 별로 미덕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 백지 광고를 내게 되었으며, 내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서로 나눠 가지기에도 불편한 오늘의 어려운 사정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 7월호도 어쩔 수 없이 광고란을 메우지 못한 채 발간되고 있는 불행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은 월간 對話지 7월호의 편집후기의 한 토막이다 무언가 분위기가 좀 풀리는가 싶어 7월호를 받고도 한달을 더 기다려 보았다. 그런데 8월호에도, 앞 뒤의 표지는 「이 난은 광고를 게재하는 난입니다.」라는 짤막한 한마디 뿐, 공백이다. 광고를 숨쉬며 사는 세상에 하나의 월간잡지가 지난 3월호부터 내리 다섯번이나 책을 내며 광고를 못 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화라는 표제를 단 잡지가 제 스스로부터 대화를 못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습기까지 하다. 좌우지간 이것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비정상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의 사회와 역사를 무시하는 사회 문화 종합지」인 <대화> 8월호는 이렇게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다. - “나라밖은 시끄러운데 나라안은 조용하다. 시끄러운 것을 조용함으로 흡수시키는 민족의 슬기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시끄러운 것을 시끄러운 액면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어두움이 있다면 그건 더 큰 걱정이 아닐까. 아등은 한반도의 역사는 일대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숲 정 이 산책



파티마에서 성모상 기증

□ 성서교실 ⑩ □



### 골로사이서

이 순성(베드로) 신부

저자와 수신인 : 골로사이서는 바울로의 후기 서한이다 1장 1절에서 바울로가 이 서간을 쓴다는 내용과 이 서간에 전해진 개인적인 소식으로 보아서, 이 서간이 바울로의 분명한 친서인 필레몬 서간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레몬 서간에서 바울로는 도망쳐 나온 오네시무스를 관대하게 처우해 줄 것을 필레몬에게 빌고 있다. 그런데 골로사이서 4장 9절에서는 골로사이 출신이었던 바로이 오네시무스가 바울로와 함께 골로사이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또한 이 서간에는 필레몬서에서와 같이 아르키무스(골로 4, 17 : 필레2)와 에빠뿌라스(골로 1, 7 : 필레 23)의 이름도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석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서간을 바울로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간의 수신인은 당시 대도시가 아니었던, 그러나 에베소에서 따르소와 시리아로 가는 길목을 이룬 리코스계곡에 위치한 골로사이의 신자들이다.

집필동기와 내용 및 신학 : 당시 소아시아에는 여러가지 언어, 문화 및 종교들이 동서에서 물려와 교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환경은 물론 골로사이 시(市)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사도 바울로는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잘못된 신앙 생활에 빠지기 쉬운 신자들에게 불안과 위협, 그리고 의문점들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올바른 교리와 권유로써 도와주고자 이 서간을 집필하게 되었다.

골로사이서는 갈라디아서, 고린토서, 로마서에서 바울로가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구속행위로써 죄인을 의화시키고 이 의화와 함께 평화와 성령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제시했던 바를 완성하는 서간이다. 그러므로 골로사이서는 그 심오한 그리스도론으로 인해서 귀중한 문헌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태초부터 창조물의 중개자요, 으뜸이며, 지금은 구속된 인류 공동체 즉 교회의 머리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권능들 위에 초월한 분이며 그분 안에는 신성(神性)이 충만하다(1, 13-23). 그분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요 종말이며, 구약은 그림자가 광명 앞에 사라지듯이 그분 앞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교회는 그를 통해서 모든 율법적인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2, 16-23). 윤리 생활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비롯하며, 이러한 윤리 생활은 신분과 직업에서 오는 임무를 이행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3, 18-1, 1).

(진안 천주교회 보좌신부)

□ 여름밤에 따우는 편지 □



### 이 불멸의 열기를...

송 수녀님! 김 루시아

무던히도 찌는 날씨예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다 못해 줄줄 흐르고 있는걸 보니 정말 어지간한 날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더운날 수녀님들은 긴 두건, 긴 소매의 수도복까지 입으셨지요? 더우지 않으세요?

거리거리 집집마다, 쏟아지는 불볕아래 모든것이 어쩔 수 없이 침묵이 되어버렸는데도 아무리 눈뜨고 봐야 수녀님들의 묵묵한 그 표정에서는 도저히 더위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군요.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나요?

날씨도 날씨 탓이지만 너무도 답답한 풍경들이 많은것 같아요. 이글거리는 태양에 쫓겨 온갖 물고기란 것은 모두가 물려온 듯한 저소득층 서민들이 오고가는 골목안, 담배 가득한 시장안 풍경. 재벌의 집안에, 권세있는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기에 배우고 싶은 온갖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못해보는, 개미 쳇바퀴 돌듯한 악순환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내 형제들의 생활풍경. 서로를 못믿어 속고 속이며,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우리 약한 형제들의 가슴아픈 풍경.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고귀한 인격을 가졌으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네 철장, 불신과 사기로 가득찬 울가미속의 풍경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는 사회안에서 서로를 위하며 살고 싶어요. 모든 것 시원스레 터놓고 잘뉘듯함 서로 충고하며 잘된점 서로 칭찬하며 산다면 이 한여름 더위쯤이야 잊혀질 것 아니겠어요? 안으로만 안으로만 우리의 마음들을 묶어 둔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더구나 이렇게 찌는듯한 여름날에... 수녀님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수녀님들의 긴 수도복이야 간단히?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주님에게 수녀님들의 갑갑한 마음들 다 털어놓으며 주님의 한 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오손도손하게 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 받으며 생활하시니까요. 하지만 수녀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아요? 이 답답한 사회의 풍경들 속에서 그저 내박쳐져 있어야만 되나요? 우리는 이러한 참상들을 견뎌 이겨내고 싶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수녀님의 시원스런 미소, 환한 웃음판 있다면... 그 웃음따라 우리 가난한 형제들의 찌들은 얼굴도 펴질 수 있을것 같고, 우리의 단려진 마음들도 시원스레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을 찾고 바다를 찾을 수 없드래도 우리는 수녀님들의 웃음 속에서,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과 정성스런 손길을 찾아, 그 안에서 평안하게 더위를 달랠 수가 있을거예요. 수녀님들의 묵묵한 침묵 속에서 보답야...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삽화은수 보일러 ☆

☆특징 -주물러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 부활상회

대표 주원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합(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 오 멘 (Omen)

77년 7월 7일에 영화 「오멘」을 보았다. 7이라는 숫자가 넷이나 겹치는 날로써 행운의 날이 아니냐고들 하는 모양인데 그 행운의 날에 불길한 영화를 본 것이 좀 이상하다. 지면 관계상 영화의 줄거리는 생략하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대사의 아들이 6월 6일 6시에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죽고, 그 대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어떤 남자아이를 친아들 대신 데려다 키운다. 그 아들이 다섯살 되는 생일(6년째의 6월 6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유모가 죽고,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부가 죽고, 마침내 대사의 아내마저 죽는다. 그래서 결국 대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데 마침내 이스라엘의 메깃도라는 발골지를 찾아가 한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은 악마의 자식이니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악마의 자식이라는 증거로는 그 몸에 6이라는 숫자가 셋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과연 아들의 머리칼 밑에 6이라는 숫자 3개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사는 그 아들을 죽인다.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화에서는 6이라는 숫자를 악마적인 것으로 보고, 666을 악마와 반(反)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로 풀이한다. 그런데 영화 맨 끝에 요한 묵시록 13, 18이 소개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그 수는 666입니다.”

초대 교회의 뉴머롤로지(numerology : 숫자 풀이)에 의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사람의 이름은 네로 황제(Neron Caesar)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음 없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nrwn qsr인데 이것을 숫자로 환산하여 더하면 666(50+200+6+50+100+60+200)이 된다. 네로 황제는 본문에 꼭 맞는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한 맨 첫번째 황제로서 그 성격이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다.

또 하나의 풀이는 삼각수(triangular number)식 풀이이다. 666은 1에서 36까지의 숫자들을 합한 것이고 36은 1에서 8까지를 합한 것인데 8은 여덟번째 황제인 도미시아누스(Domitianus 81~96년에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도미시아누스 황제는 잔학무도하여 네로 황제의 망령(Nero redivius)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 황제 밑에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심한 박해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영화 「오멘」은 요한 묵시록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는데 요한 묵시록의 사상과는 정반대의 영화이다. 세상의 종말은 악마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짐승 무시한 영화 「오멘」은 「엑소시스트」나 「신들린 여인」처럼 오히려 반그리스도교적이며 비인간적인 공포만을 불러온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악마적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을 비인간화 하려 할지라도, 신과 진리와 사랑의 형제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며 완성할 것이다.

## 요십이 (208)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야코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많이 찾아 주세요\*

## 군산梨花치과 의원

박 안드레아(찬운)  
☎ 8711(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극장

□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

## 뉴-타자 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③ 6 6 6 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③ 4577)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도산매  
세무서 지정업체 □

## 봉천출판사

김정생(베드로)  
전매청 오거리 ☎ ③ 2 6 6 9 번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 **축!** 장수 본당 설정...7월 20일 초대 주임 왕 수해 신부 부임
1. 교구 회계년도, 현행 9월말을 12월말로 변경 따라서 7월 25일<월>에 있을 예정이던 사목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도 무기 연기됩니다.
  2. 전주교구 7월 정月的 평화 미사(25일<월> 오후 8시, 노송동 성당).
  3. 전주교구 7월 정月的 평화를 비는 미사에 많은 교형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 제3지구 학생(26-28일, 고산, 참가비 700원), 청년(8월 1-4일, 부안 장산포 해수욕장)
  5. 전북 형제회 도지부 월례회(7월 30일<토> 오후 3시, 노송동 성당)
- **문정현 신부님** 위한 성금 감사합니다. 전동 방직 3회(10,000원), 배영근 신부(10,000원), 익명(5,000원) 무주지구 수해민에게 100,000원, 전주교구 인성회 총재이신 주교님께서 전달(7월 20일) 수재의연금 감사합니다. 장제 본당(14,670원), 신배인(7,335원), J. O. C(5,260원), 중앙성당형제회(3만 원, 의류 116점, 양말 40족, 배 3필) 인성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전 대북 신부 방송...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생 태수 신부 방송
- ※ 편집실에서 삼가 아리웁니다. 편집에 애로가 있으신 분은 본당 소식을 늦어도 화요일까지 도착되도록 선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하계 어린이 특별교리 : 7, 25-30일, 오전 9-12시
  2. 대학생회 수련회 : 25일, 신령 (9시에 합동 배차장에 집합)
  3. 중 고등 학생회 수련회 : 7월 27-30일
  4. 청년 합창단 단합대회 : 8월 30-8월 1일
  5. 미사시간 엄수 바랍니다 : 1주일 동안의 시간...168시간, 미사 봉헌하는 시간...1시간. 성당에 오가는 시간...30분
  6.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읍시다! 구약...2년 6개월, 신약...9개월
  7. 미사때 공동체 성가집을 지참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3,503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웅희 사도 회장 박종홍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노송 신우회 발족! 매월 둘째 주 저녁 미사후에 월례회, 회장-김철문(그레고리오), 총무-최기종(베드로), 감사-고영근(세바스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하계 주일학교 특별교리...25일-30일, 오전 9-12시 부모님들의 성의있는 협조 바랍니다.
  4. 성가연습 : 각 미사전 15분간, 교우님들 공동체 성가집 가지고 미사시작 20분전까지 나오세요.
  5. 공식미사 때 어린이와 함께 오신분은 소성당에서 미사 참례합니다. ※ 부모님들, 미사중에 어린이들이 조용히 하도록 특별히 주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4,70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성서연구 및 교리시간 안내 토요일...학생 및 직장인 (오후 6시반), 어머니(오후 3시), 예비자(밤 8시반), 월요일...노인(밤 9시반), 일요일 아동(오후 2시)
  2. 성가연습 시간 안내...어머니-<토> 오후 4시, 청년, 학생-<금> 밤 8시 ※ 젊은이들의 광장-<금> 성가연습후, 김종태 선생님 지도
  3. 「사랑의 모금」 불우한 이웃과 수제민 위해 모금합니다.
  4. 신축헌금 신입 감사합니다 : 이영덕(2,500), 고봉주(1만), 김옥남(5천). 총계 8,880,500원 아직도 신입하지 않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신입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8,777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하계 주일학교 특별교리 : 8, 8-13일, 오전 9-12시 빠짐없이 다 보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이명숙, 이양숙, 한라희>
2. 중 고생 하계 수련회 : 7, 26-29일 (본당에 미사없음) 선수도, 지참물 : 회비(2천원), 백미 3되, 미사도구 취사도구, 친구 등, ※ 본당 신부님, 사무장 인솔, 강사-조성호, 양규철, 박상기, 김종술(27-28일).
3. 성우회 : 오늘, 봉동다리 하차 상단 200m지점, □ **지난주 봉헌금** : 44,576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유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하계 특별교리 : 7, 25-30일 국민학생...오전 9-12시, 중 고생...오후 3-5시
  2. 미사시간(25-30일) : 오전 12시
  3. 교무금 납부에 노력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9,351원 감사합니다.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고등학생 쉼 및 회합 : 매<토> 오후 8시
  2. 첫 영성체 교리 : 26일부터 매주<화-금> 오전 9시
  3. 유아세례 : 31일 공식미사 후
  4.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 장원모, 김동진, 김영진
  5. 성화상영! 교형 자매님들, 외교인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파티마의 기적」...7월 30일<토> 오후 8시반 「가장 거룩한 사람」...7월 31일<일> 오후 8시반
- **지난주 봉헌금** : 69,5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1. 동반장 회의 : 오늘 밤 미사후
  2. 제3차 성지순례 : 31일 11시반(일반 버스 주차장), 천호 공소의 무명 순교자 묘 ※ 대상-미혼 남녀, 준비물-도시락, 왕복 여비 360원
  3. 예비자 특별교리 : <화·수> 양일간, 신부님들께서
  4. 마리아 빨리 참가자 내일 2시반에 본당에서 출발 ※ 28일 오후 4시까지, 할 이를 지참
  5. 성서 동지회 가입 : 젊은 남녀, <월> 밤 8시반, 사제관
  6. 첫 영성체 준비 : 8월 1일부터 10일간
- **지난주 봉헌금** : 126,400원 ※ 새성당 기초 철근 콘크리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 **신축헌금** : 중앙동-세느양장(10만), 전동-천사들의 집(10만), 한동환(1만), 교동-정루가(5만), 신희상(1만), 기타-일꾼자 의(23,000), 익명(20만) 주계 : 493,000원 누계 28,087,400원 금품 118돈 현금납입액 5,578,700원